

성도 요한이 전한 복음

요한복음

기록자: 요한, 기록 시기: 주후 90년경, 성격: 역사와 교리, 기간: 영원 전
과거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나타나심까지

수신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20:31).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 그 당시 유행하던 플라톤 사상 즉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내려와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는 사상을 논박하였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들어 있으므로 그분의 말을 듣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었다.

이름: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사도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다’를 뜻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이며(13:23; 20:2) 신약성경은 무려 35회나 그의 이름을 말한다. 그는 주후 50년경의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고 그 뒤 소아시아에 감독으로 가서 대부분 에베소에 머물렀고 밧모 섬에 유배되어 계시록을 기록하였다.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목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출생 전 존재, 출생 후의 삶, 사역, 죽음, 부활 그리고 부활 후의 나타나심 등을 기록한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은 공관복음이 아니다. 공관복음은 주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했으나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증언과 가르침의 영적 교훈을 해석했다. 그리스도는 죄로 인한 어린양이시며(1:29) 목마른 자를 위한 생수이시고(4:14) 배고픈 자를 위한 빵이시며(6:35)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시고(8:12)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문이시며(10:9) 길 잃은 자들을 위한 선한 목자이시고(10:11) 영광으로 향하는 길이시며(14:6) 영적 성장을 위한 참 포도나무이시다(15:1).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영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은 21장, 879절, 18,658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 핵심 절: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20:31), 핵심 단어: 아버지(100회 이상), 믿다(98회 이상), 영원한 생명(35회), 핵심 구: “믿는 자는”(3:18, 36), 요한복음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1:14, 18), 영적 교훈: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제 1 장

영원한 말씀

1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2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5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의 증언

6 ¶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7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8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9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10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11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때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12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13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 ¶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하니라.

16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며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17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18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마3:1-12; 막1:1-8; 눅3:1-20)

19 ¶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에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0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며

21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며 또 묻되, 그러면 네가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거늘

22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

23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24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25 그들이 또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하며

26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27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28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타바라에서 일어났더라.

하나님의 어린양

29 ¶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30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31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32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

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33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34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첫 두 제자

35 ¶ 또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의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36 예수님께서 거닐실 때에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하니

37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38 그 때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3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 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열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40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41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빌립과 나다나엘

43 ¶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

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44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벳새다 출신이더라.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매

46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7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48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49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 소이다, 하매

5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네게 말하였으므로 네가 믿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51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제 2 장

가나의 혼인 잔치

1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2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3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지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4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5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두세 통 담는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더라.

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8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9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 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10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 두었도다, 하니라.

11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의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12 ¶ 이 일 뒤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니라,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함
(마21:12-13; 눅19:45-46)

13 ¶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

라가사

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15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시고

16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18 ¶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매

1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20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 데 사십육 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21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22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람의 속 중심을 아시는 분

23 ¶ 이제 유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매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24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말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25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

이라.

제 3 장

구원: 다시 태어나는 것

1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2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3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4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5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8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9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10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12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13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14 ¶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15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6 ¶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18 ¶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19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도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 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21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침례자 요한이 그리스도를 높임

22 ¶ 이 일들 뒤에 예수님과 그분

의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들어갔고 그분은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23 ¶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애소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니

24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25 ¶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 중의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매

26 그들이 요한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하니

27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해 증언하되 곧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느니라.

29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30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31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32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33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34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

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생명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 4 장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메시아를 만남

1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2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3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 가실 때에

4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5 그때에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6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지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앉으시니라. 때는 여섯 시쯤 되었더라.

7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으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8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9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10 예수님께서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11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 이여, 선생님께는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나이까? 하매

13 예수님께서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15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 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16 예수님께서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17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18 네게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네게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네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19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 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서이다.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21 예수님께서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22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23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25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26 예수님께서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수확 밭이 희게 됨

27 ¶ 이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28 그때에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29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31 ¶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거늘

32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떡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33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매

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35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닢 달이 남아 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르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36 거두는 자가 샅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37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38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세상의 구원자

39 ¶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의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40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그분께서 거기에 이들을 머무르시매

41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42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43 ¶ 이제 이틀 뒤에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시니

44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하느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45 그때에 그분께서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니 이는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귀족의 아들을 고침

46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거기에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47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 줄 것을 구하니 이는 그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48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매

49 그 귀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며,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니

5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51 이제 그가 내려갈 때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 있나이다, 하거늘

52 그때에 그가 자기 아들이 낮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일곱 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나이다, 하매

53 이에 그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54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신 뒤에 행하신 둘째 기적이니라.

제 5 장

예수님께서 병약한 자를 고침

1 이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 가시니라.

2 이제 예루살렘의 양 시장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다섯 개가 있고

3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4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5 거기에 삼십팔 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6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는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7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며, 물을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8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 날은 안식일이더라.

10 ¶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운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네가 네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하매

11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느니라, 하니

12 이에 그들이 그에게 묻되, 네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매

13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곳에 무리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다.

14 그 뒤에 예수님께서 상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네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15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공경하라

16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17 ¶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19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통한 생명과 아들을 통한 심판
2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27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28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29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30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에 대한 네 증인

31 내가 만일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리라.

32 ¶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때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34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

라.

35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 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느니라.

36 ¶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37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

며
38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39 ¶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나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40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41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42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나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43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44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46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47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제 6 장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임

(마14:13-21; 막6:30-44; 눅9:10-17)

1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3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4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5 ¶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7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이백 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매

8 그분의 제자들 중의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9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 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10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쯤 되더라.

11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12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 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 빵 다섯 개의 조각들로 열두 바구니를 채웠더라.

14 그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음

(마14:22-27; 막6:45-52)

15 ¶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6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17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니움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18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19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이십오 내지 삼십 스타디온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21 이에 그들이 그분을 반가이 배로 받아들였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물에 이르렀더라.

하늘에서 온 빵

22 ¶ 그 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탄 배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따로 가는 것을 보니라.

23 (그러나 다른 배들이 디베라를 떠나 주께서 감사드리신 뒤에 그들이 빵을 먹던 곳으로 가까이 왔더라.)

24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또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며 가버나움으로 가서

25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매

26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27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28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29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30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31 기록된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32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33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

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34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35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39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40 나를 보내신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서 자신의 백성에 의해 배척될

41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며

42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하니

43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45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6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7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48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51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52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매

53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55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59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더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남

60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의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매

61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62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63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 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64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65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 ¶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의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 이에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68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69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

7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

되, 내가 너희 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71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열들 중의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제 7 장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음

1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2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3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4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6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7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8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9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분께서 가만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하늘에서 온 지혜자

10 ¶ 그러나 그분께서도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그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되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하시니라.

11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 그분을 찾으며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12 또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수군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라.

13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14 ¶ 이제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15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며

1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17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18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20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며

2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

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23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 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24 걸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25 그때에 예루살렘 사람들 중의 몇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 그런데, 보라, 그가 담대하게 말하되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치리자들은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는가?

27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28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29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시며

30 이에 그들이 그분을 잡고자 하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31 사람들 중의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랴? 하니라.

32 ¶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으니라.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직무 수행자

들을 보내매

33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 뒤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리라.

34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35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가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36 그가 말한 것 즉,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것은 무슨 말이나? 하니라.

성령의 약속

37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39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상형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40 ¶ 그러므로 사람들 중의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로다, 하며

41 다른 이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42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헨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43 이처럼 그분으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44 그들 중의 더러는 그분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권세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함

45 ¶ 그때에 직무 수행자들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46 직무 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47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도 속았느냐?

48 치리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과연 누가 그를 믿었느냐?

49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하거늘

50 (그들 중의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하니

52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53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제 8 장

예수님께서 음행한 여인을 용서함

1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라.

2 그분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4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5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

까? 하니라.

6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7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8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에 쓰시니라.

9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에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10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11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12 ¶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13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네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하매

14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15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6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

17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었으니

18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시니라.

19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20 예수님께서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 보고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함

21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며

22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2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25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26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시매 나는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그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27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8 이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이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하므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30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31 이에 예수님께서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33 ¶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네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며

34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35 좋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브라함의 씨와 마귀의 씨

37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39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40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4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아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43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기 때문이라.

45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

하느냐?

47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48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하니

49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50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51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52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네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53 네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네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하매

54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존귀를 돌리면 내 존귀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존귀를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55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56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57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직 오십 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5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59 그때에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

제 9 장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침

1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2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쭙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하니

3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4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6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7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8 ¶ 그러므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눈먼 것을 본 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매

9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그는 그와 비슷하다, 하나 그는, 내가 그로다, 하니라.

10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하매

11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하니

12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눈먼 사람을 출회시킴

13 ¶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니라.

14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 주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15 그때에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하니라.

16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의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17 그들이 그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네 눈을 열어 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무어라 말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는 대언자이니이다, 하니라.

18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에 관한 일 곧 그가 눈멀었다가 시력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시력을 받은 사람의 부모를 불러

19 그들에게 물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너희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그가 어떻게 보느냐? 하니

20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21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열어 주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이다, 하니라.

22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23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하였더라.

24 이에 그들이 눈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

25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하매

26 그때에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네 눈을 열어 주었느냐? 하니

27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하매

28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29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30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 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31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32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 주었다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33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리이다, 하매

34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보는 자들과 보지 못하는 자들

35 예수님께서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36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37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나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38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39 ¶ 예수님께서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40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의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멀었느냐? 하니

41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제 10 장

나는 양들의 목자이다

1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2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3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4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5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6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7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목자니라.

8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11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12 목자가 아닌 삯꾼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헤치느니라.

13 삯꾼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삯꾼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15 아버지께서 나를 알 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16 또 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들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17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18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19 ¶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생겼으므로

20 그들 중의 많은 자들은 이르되, 그는 마귀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21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이것들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라.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 줄 수 있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돌로 치려 함

22 ¶ 예루살렘에 성전 봉헌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23 예수님께서 성전 안의 솔로몬의 주랑에서 거니시더니

24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

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25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26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29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30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31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하거늘

32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의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33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하매

34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5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36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

게, 내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37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르단 건너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

39 이러므로 그들이 다시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피하시고

40 다시 요르단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서 거기 거하시니

41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왔다가 이르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라, 하더라.

42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제 11 장

예수님께서서 나사로를 살림

1 이제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출신이더라.

2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3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4 예수님께서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5 이제 예수님께서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6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7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하시매

8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어,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려 하였는데 또 거기로 가시나이까? 하니

9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열두 시간이 있지 아니하나?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10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시니라.

11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려 가노라, 하시니

12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자면 좋아지리이다, 하시니라.

13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으되 그들은 그분께서 잠자며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니

14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매

16 그대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시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7 그대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18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십

오 스타디온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므로

19 유대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더라.

20 그대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가서 그분을 맞이하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더라.

21 그대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22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23 예수님께서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24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25 예수님께서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27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시니라.

28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자기 길로 가서 은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 그녀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그분께 가더라.

30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아직 곶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했던 곳에 계시더라.

31 그대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에서 슬피 울려고 무

덤에 간다, 하며 그녀를 따라가니라.
 32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더라.

33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34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매

35 예수님께서서 우시더라.

36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37 그들 중의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 준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냄

38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39 예수님께서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40 예수님께서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41 그때에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43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44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 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함
 (마26:1-5; 막14:1-2; 눅22:1-2)

45 그때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서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46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하니라.

47 ¶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48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므로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매

49 그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며

50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더라.

51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52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53 이에 그들이 그 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54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 다시는 유

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광야에 가까운 시골로 가서 에브라임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 거기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니라.

55 ¶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56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자기들끼리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이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57 이제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그분을 붙잡기 위해 누구든지 그분께서 계신 곳을 알거든 그곳을 알리라고 명령을 내리니라.

제 12 장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음(마26:6-13; 막14:3-9)

1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2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3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의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가 말하되,

5 어찌하여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이므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7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 두어라. 나를 장사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9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10 ¶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라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11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감

12 ¶ 그 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14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15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네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16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이것들을 행하였음을 생각해 내니라.

17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니라.

18 이런 까닭에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19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느도다, 하니라.

한 알의 밀이 죽어야 열매를 맺음

20 ¶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

21 그러므로 바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의 벳새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뵈기 원하나이다, 하니

22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니라.

23 ¶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2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26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함

27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29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

에게 말하였다, 하니

30 예수님께서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31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32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33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자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 주시니

34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매

35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37 ¶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38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9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르되,

40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퍽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

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41 이것들은 이사가야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에 이른 것이더라.

빛 가운데서 걸으라

42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43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44 ¶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45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4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47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48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9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50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제 13 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음

1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

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4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5 그 뒤에 대아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6 그때에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매

7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라.

8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네게 없느니라, 하시니라.

9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매

1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하므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11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12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14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16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17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예수님께서 배반자를 지적함

(마26:20 - 25; 막14:17 - 21;

눅22:21 - 23)

18 ¶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19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20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21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매

22 이에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셨는지 의아해하더라.

23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의 하

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24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깃집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

25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니까? 하매

26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시니라.

27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28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29 그들 중의 어떤 이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 생각하더라.

30 그때에 그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새 명령

31 ¶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32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요,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33 어린 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34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

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함

36 ¶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하시거늘

37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하매

38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제 14 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6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8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9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하느냐?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12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위로자 성령님을 약속함

15 ¶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16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17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

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18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 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20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21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22 가룟이 아닌 유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위로자 성령님과 주님의 평안

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26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27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니라.

29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30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니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31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제 15 장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1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2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3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 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

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2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14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15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라.

16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17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리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21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22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 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24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25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26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게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제 16 장

예수님의 경고와 위로

1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2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3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미 그것들을 일러 주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또 처음에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니라.

성령님의 일

5 그러나 지금 내가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아무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내게 묻지 아니하고

6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8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12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14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15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16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17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의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나? 하고

18 그러므로 이르되, 그분께서, 조금 있으면,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나?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19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고 말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끼리 문의하느냐?

20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21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22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23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25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대하여 분명히 너희에게 보이리니

26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니

27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며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28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29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30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쭈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매

31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 보라, 너희가 흠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흠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33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제 17 장

주님의 기도: 자신을 위하여

1 예수님께서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2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3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5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 제자들을 위하여

6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

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줄 알았나이다.

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확실히 아오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9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나이다.

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11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나이다.

13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나이다.

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나이다.

15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 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17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

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주님의 기도: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20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21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22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나이다.

24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과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25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 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이다, 하시니라.

제 18 장

예수님께서 배반당해 붙잡힘
(마26:47 - 56; 막14:43 - 50;
눅22:47 - 53)

1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나아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2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3 그때에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넘겨받은 사람들과 직무 수행자들 한 부대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니라.

4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5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6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시매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7 이에 그분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매 그들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은즉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하시니

9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 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 이더라.

10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뺐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11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안나스 앞으로 끌려감
(마26:57 - 58; 막14:53 - 54; 눅22:54)

12 이에 그 부대와 대장과 유대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13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이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이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더라.

14 이제 가이비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
(마26:69 - 70; 눅22:55 - 57)

15 ¶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는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으나

16 베드로는 바깥의 문 곁에서 있더라. 그때에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던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

17 그때에 문을 지키던 소녀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의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더라.

18 날이 추우므로 종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솥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몸을 녹이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더라.

예수님께서 심문을 받음
(마26:59 - 66; 막14:55 - 64;

눅22:66 - 71)

19 ¶ 그때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교리에 대하여 물으니

2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

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21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아느니라, 하시니라.

22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매 곁에서 있던 직무 수행자들 중의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며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악한 것을 말하였으면 그 악한 것에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나 잘 말하였으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24 이제 안나스가 그분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이바에게 보내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 더 부인함

25 시몬 베드로가 서서 몸을 녹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그의 제자들 중의 하나가 아니냐? 하매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라.

26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의 친족이더라. 그가 이르되, 그와 함께 동산에 있던 너를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27 그때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매 곧 수탉이 울더라.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섬
(마27:1-2, 11-14; 막15:1-5;
눅23:1-5)

28 ¶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이바에게서 데려다가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29 그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해 무슨 고소거리를 가져오느냐? 하매

30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범죄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거늘

31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하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하니라.

32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 주시며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33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그분께 이르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34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네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하시니

35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매

36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37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38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바라바 대신 죽음에 넘겨짐 (마27:15-23; 막15:6-15; 눅23:13-25)

39 그러나 유월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너희에게 있으니 그러즉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매

40 그때에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이니이다, 하니라. 이제 바라바는 강도더라.

제 19 장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함
(마27:27-31; 막15:16-20)

1 그때에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2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고

3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며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4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빌라도의 최종 결정

5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쓰고 자주색 긴 옷을 걸치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라! 하니라.

6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그분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거늘

7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8 ¶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9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이르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10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네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매

11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12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니이다, 하니라.

13 ¶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들로 포장한 곳이라 불리지만 히브리어로는 갭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던 재판석에 앉으니라.

14 그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여섯 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15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 버리소서, 그를 없애 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16 그러므로 그가 그때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힘

(마27:32 - 56; 눅23:26 - 43)

17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18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았으며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19 ¶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저기의*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2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에 유대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이 명패를 읽더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21 그대에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쓰소서, 하니

22 빌라도가 응답하되,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하니라.

23 ¶ 그대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네 몫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하며 그분의 겹옷도 취하였는데 이제 이 겹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더라.

24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자, 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겹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들을 행하였더라.

네 어머니를 보라

25 ¶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클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26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27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네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다 이루었다

28 ¶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30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군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름

31 그런즉 그 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 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 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32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33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34 그러나 군사들 중의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37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묻힘
(마27:57 - 61; 막15:42 - 47;
눅23:50 - 56)

38 ¶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이 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39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백 근쯤 가지고 오니라.

40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아마포에 싸더라.

41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는 결코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더라.

42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로 인해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 이는 그 돌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제 20 장

빈 무덤

(마28:1 - 10; 눅24:1 - 12)

1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3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 돌무덤으로 가니라.

4 이처럼 그들 돌이 같이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서 먼저 돌무덤에 이르렀더라. 5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아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6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매 아마포가 놓여 있고

7 또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 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8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9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10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남

11 ¶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의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12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13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14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15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리이다, 하매

16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

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랍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며, 라는 말이다.

17 예수님께서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줌

19 ¶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20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21 이에 예수님께서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22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4 ¶ 그러나 열두 제자 중의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25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복이 있음

26 ¶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28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하매

29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책을 기록한 목적

30 ¶ 진실로 예수님께서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31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 21 장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에게 나타남

1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2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의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

3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아가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4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5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매

6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시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7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의 덧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8 다른 제자들은 (땅에서 멀리 있지 않고 이백 큐빗쯤 되는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오니라.

9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1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매

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큰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 백천세 마리나 있더라. 거기 있던 모든 것이 이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주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이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13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킴

15 ¶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16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17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18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네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19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 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20 그때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시이까?

하고 말한 자더라.

21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22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 그때에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24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5 예수님께서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알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